

넷마블(251270/KS)

Analyst 남효지 hjnam@sks.co.kr / 3773-9288

SK증권 리서치센터

4Q24 Review: Unwinding

- 4Q24 매출 전분기 수준, 영업이익 352억원(-46.3%) 기록
- 올해 신작 상반기 4종, 하반기 5종(<나혼렘> 스팀 포함) 준비 중
- 실적은 1→4분기로 갈수록 견조. 비용 레벨은 낮아진 상태, 기대작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성공 시 작년 이상의 성과 달성 가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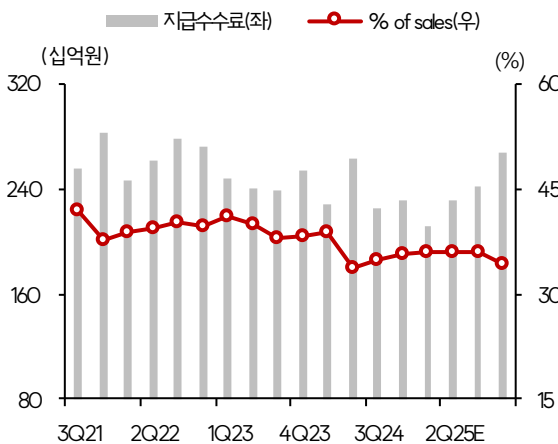
- 4Q24 매출액 6,490억원(+0.3% QoQ, 이하 동일), 영업이익 352억원(-46.3%), 순손실 1,667억원으로 컨센서스 수준 기록. 해외 자회사 게임(MCoC, 마블퓨처파이트, 해리포터:호그와트 미스터리 등)의 업데이트 및 성수기 효과로 매출은 전분기 수준 유지. 영업비용은 6,138억원(+5.5%)으로 외부 IP 매출 증가로 지급수수료는 증가했으나 인건비, 마케팅비 통제 기조 지속

- 영업 외에서는 하이브 지분 처분 이익, 스피엑스와 카밤의 영업권 손상이 반영되며 손실 기록. 최근 3년간 4분기마다 스피엑스에 대한 영업권 손상 반영, 앞으로는 대규모 상각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금번 무형자산 손상 반영으로 상각비는 연간 100억원 수준 감소 전망

- 3/20 <RF 온라인 넥스트>를 시작으로 상반기 4종, 하반기 4종+<나혼렘> 스팀/콘솔 출시 계획. 작년 2분기 주요작 출시 시 자체 PC 런처 활용을 통해 지급수수료 크게 절감한 바 있음. 올해도 7종 신작의 PC 출시를 통해 지급수수료 효율화 이뤄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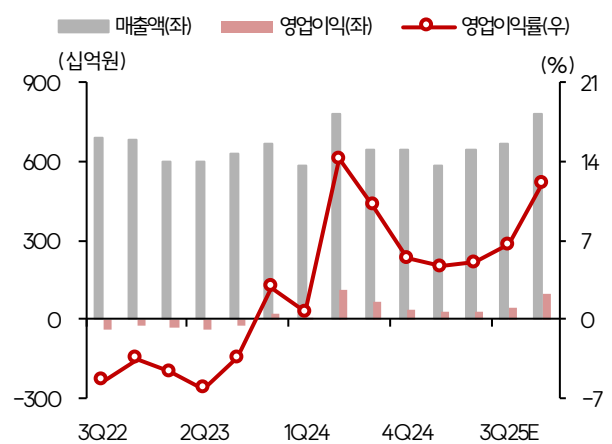
- 올해 영업비용 증가 요인은 크지 않은 가운데, 작년 큰 성과를 보인 <나혼렘>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 기대작인 <일곱 개의 대죄: Origin>에 대한 정보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동사에 대한 주목도 높아질 것. 목표주가 6.7만원 유지

자체 런처 활용으로 지급수수료 절감



자료 :넷마블, SK증권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넷마블, SK증권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